

제 16강 :(체험)성경의 맥을 잡아라

- 문봉주 대사

2004. 6. 26. 온누리교회 서빙고

III. 출애굽/광야시대

**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는 배경**

-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실패하고 말았을까? 정탐(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하나님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축복을 박탈당함. 1세대가 2세대로 교체되면서, 믿음의 세대로 바뀌면서, 모세후반기가 됨. 모세 2기로부터, 정복이 시작된다는 소망으로 끝남.

- 시내산에서 율법 받음/ 성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 시내산에서 1년간 훈련 받은 후, 이제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출발은 했지만 (말씀을 받았고/ 순종하여 성막을 지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지만) 사탄이 잘못된 image를 심어주자 바로 실족함.

- 의식주문제> 리더십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약속불신
(조그만 문제에서 시작하여, 점점 큰 문제로 확대됨.)

· 의식주문제-탐욕 (참외, 생선, 오이, 수박, 파, 부추, 마늘...)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로 광야 가운데에서, 기본적인 생활은 하였지만, 탐욕(고기생각)을 만족시키지 못함. 인간의 욕은 금방 반응하여, 불평하게 됨.

· 리더십에 대한 도전-정탐한 결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이삭/야곱의 때부터 약속하셨던 말씀을 믿고 따라 왔지만, 정작 들어가보니까, 우리 눈으로 본 엄청난 아낙자손이 있었음. (눈으로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율법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 말고, 상상 섬기지 말라고 하였는데 두려워함.) 율법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권세(Egypt)에서 하나님의 100% 주권(은혜)로 고집어 냈지만,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 우리의 선택 (결단)임.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중에서 믿음을 가진 자의 선택이 먼저 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임. 우리가 먼저 결단할 때, 그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싸워주시는 정복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임.

· 하나님의 약속불신- 약속의 땅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투쟁해서 얻어지는 것임. 이스라엘백성은, 하나님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음. 겉으로 보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내 산을 출발하였음. 그러나 정탐 후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됨. From Egypt (salvation)- 구원을 얻었는데, 문제는 to where를 잊어버린 것임.

그래서 disaster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게 됨. 목적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으니, 어디로 가야 하겠느냐? 나아가야 할 목표를 잃어버리고 나니 방황할 수밖에 없음. 그 하나님 공짜로 준다더니... 싸우라고 하느냐... 그러다가 내가 죽겠다. 못 믿겠다고 함.

· 그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천국)은 그분이 전부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믿고/의지하고/따라가는 것임. 땅을 정복하려면 전투훈련이 필요한데, 전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함.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 이스라엘의 무기 -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하겠다는 자세=믿음 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곳을 점령하라고 하심. 믿을 수 없었고, 정복해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린 백성은 방황하게 됨.

4. 광야생활 (목적지를 잃어버린 자들의 방황)

* 스스로가 선택한 엄청난 재난이었으며, 소망이 없어져버린 것임.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었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원망/범죄였음.

가. 고라당의 반역

* 가데스바네아 주변을 40년간 뱅글뱅글 돌게 됨. 광야생활을 움직이는 것은 성막임. 정착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동인데, 이 생활에서 유일하게 출세하는 자리는, 성막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이 유일하다고 생각하였음.

- 레위족속 중 고라 자손이 당을 지어서 다른 일부지파의 리더를 규합하여 250 여명이 고라당을 지어 모세 앞에 대등 (Israel 총회가 모두 거룩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데, 왜 아론의 아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레위족속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모세의 때에, 레위족속은 지파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족속으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도록 구별됨. 성막을 섬기는 자였는데, 나도 목사님 되겠다고 함.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누가 진정한 제사장인지 보자고 함. 향로를 들고, 천막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자가 제사장이 된다고 함.

- 하나님이 심판하심. 부분심판: 부분지진 (땅을 갈라, 산채로 음부에 집어넣으심) 목회자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아서 음부로 보내시는 일임. 제사장직분(목회자)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님.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가는 것이 아님. 하나님의 Calling (소명)이 있는 자가 제사장이 되는 것임.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는 것=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함. 하나님께서 왜 아론의 자손들인지 보여주겠다고 하심. 제사장 직분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하심.

- 아론의 싹난 지팡이

· 지파의 족장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살구열매가 열림.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부어서 싹이 남. 나무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자기가 먹느냐? 그 열매를 맺으나, 열매 맺어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주는 것임. 너희들은 그 제사장을 하여, 너희가 영광 받는 줄 아는데, 사실은, 굉장한 헌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심.

나. 모세의 범죄

* 가데스 근처에서 뱅글뱅글 도는데...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대역/반항하면서, 민수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남. 광야생활이 40년이 갈 때쯤, 모세까지도 범죄함.

- 물시비/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음/ 내가 물을 내랴?

· 물시비(원망)- why 모세의 지팡이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들이 물가지고 원망하고 있네... 물 같은 것은 내가 하는데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팡이로 치지 말고 입으로 명령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심. 나 여호와가 명령을 하여, “물을 내라”고 할 때, 하게하라고 하심.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 백성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자존심 상하였음.

성경에서 “모세를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였는데, 이때는 화가 났음.

· 내가 물을 내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임. 이것이 바로 모든 은사자가 쉽게 타락하는 첩경임. 모세의 공분(公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 하나님께서는 공분도 안 된다고 하심.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화내면 안됨. 이때, 하나님께서 “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 모세도 거절

· 모세가 위대한 것은, 나도 못 들어가면, “이제는 그만 해야지” 라는 생각인데... 안 그랬음.

· [나를 벗어난 사람]=[나를 부인한 사람] 임.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사역에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함.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임. 하나님께서, Nebo산에 올리셔서 이땅을 다 보게 하시고, 축계 하심.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사건을 알지 못하는 2세들에게 주신 율법해설집 임.

다. 불뱀사건

38년간 방황 후 모세가 에돔 족장에게 가서, 이땅 통과해야 하는데, 왕의 대로로만 통과할 것이며 물도 사먹겠다고 제의했으나 거절 당함. - 훗날 “아카바만”에서 유프라테스강까지의 길을 king's highway (왕의 대로) 라고 하는데, 이 길은 중동지방의 물류의 중심지였으며, 다메섹에서. 이곳에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로 무역을 하게 되었음.

- 왕의 대로 (에돔이 통과 거부)

· 모세가 이 길을 통과하면서, 우물물의 물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에돔 너희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고 하였는데, 지나가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거부함. 여기서, 이스라엘백성은, 완전히 절망해버림. 목적지를 잃어버린 입장에서, 갈 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꿈쩍 못하게 됨. 모세가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Hor산으로 인도함. 미리암은 이미 죽었음 (문둥병이 낫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 비실비실하다가 죽음) 아론도 죽음. 이때 모세의 입장 a) 약속의 땅 거절 당하고, b) 미리암/아론 죽음에서, 그래도 끊임없이 인도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절망하여 엄청난 불만을 하게 됨. 왜 우리를 고생시키는가?

- 절망가운데 불평, 원망> 불뱀 사건

· 나무에다가 구리 뱀을 달아서, 보는 자마다 낱을 것이라고 하는 구리뱀 사건. 이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임. 육이 깨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됨- 육이 깨질 때 (엄청난 질병...)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임. 어떤 사람이 구리 뱀을 쳐다보고 나왔느냐? 1세대는 믿음 없음으로 인해... 1세대에서 살아남은 자는 여호수아, 갈렙임. 1세대 (불신앙)와, 믿음을 가지고 고통가운데 바라보는 2세대가 완전히 교체되는 시간이 광야의 늦뱀 사건 임. 지금까지 끊임없이 불평함. 2세대로 교체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축복으로 바뀌어짐. 민수기 (모세후반) 2세대로부터, 정복전쟁이 시작됩니다.

<<세가지 십자가>>

- 하나님의 말씀 (빛/생명)으로 세상을 지으심/ 사람의 속은 말씀으로 밝히지 않으심. (자유 의지에 맡기심) 우리 속은 늘 컴컴함. (렘17/9)'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만약에 밝혔으면 robot임. 짐승은 늘 본능으로 움직이므로 죄가 없음. (짐승은 별다른 고통이 없음)

- 사람의 선택 a) 생명과 (하나님 말씀) 먹으면> 우리 속을 밝혀줌 b) 선악과 (세상생각)= 내 생각 먹으면> 밖으로 눈이 밝아져, 내 속은 시커먼 것이 있으면서, 남의 허물은 제일 잘 보임. 그러므로, 나의 선택으로 말씀을 먹을 때만, 나의 삶이 밝아짐. 그러나 아담이래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음. -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심. 우리 피조물은 의인이 없으며, 하나도 없으니, 그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됨-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함.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성령(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심. 성화는 어디까지 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 (심판 주) 우리의 시커먼 속을 성령께서 "금매끼" 해주셔서, 내 속(안)을 점점 정금으로 채워가시는 과정이며, 이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임. 끊임없이, 우리의 선택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함.

- 사람 있는 곳에는 흑암 (어두움/죄) 있음> 사망(고통)

- 죄의 결과로 끊임없이 고통을 겪음. 고통을 겪는 것이 십자가임.
-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3개 있었음.

(1) 왼편 강도 십자가 (말지않는 자)

- 자기 죄로 인한 십자가 (내 죄 때문에 고통) - 고통 가운데서도 이웃을 비난하고 원망함 : 끊임없이 선악과 먹고(자기가 고통 받으면서도) 지옥 가는 십자가임. 나는 십자가 안 지겠다. 내가 아무리 십자가 안지겠다고 해도, 로마병정이 와서, 십자가 지게 함. 누구도 죄와 십자가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

(2) 오른편 강도 십자가 (성도)

- 우리도 자기 죄로 십자가 (고통) 위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회개의 십자가) 광야에서 불뱀을 바라보는 고통가운데에서, 늦뱀을 바라보고 살은 자. 늘 회개의 십자가를 지고, 내 죄와 허

물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함. (죄를 붙들고 있는 사탄이 떠나감) 죄에 눌러 있으면, 절대 이웃을 볼 수 없음. 절대 자유함이 없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니...,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마다 (나를 꼭 누르고있던 사탄이) 빠져나가므로, 고백할 때 (소멸의 영)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채워지면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음.

- 완전히 사랑에 응답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심. 예수 믿는 성도의 축복임. 죄와 상처에서 자유케 하셔서, 자유의지를 회복케 하셨음.

(3) 대속의 십자가

- 이웃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것. (롬8/17)‘자녀이면, 또한 후사(後嗣)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 (inheritance)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게 됨. 대속의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는 것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는 엄청난 특권임. 완벽한 자유의지로, 엄청난 십자가를 지신 것임.

- 남편의 죄와 허물/ 못된 직장상사: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임. 약속이 있는 자는, 광야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임.

* 늘 세 가지 십자가를 생각하며, 캄캄한 죄와 허물의 십자가를 누구나 지게 되어있는데, 이왕 지는 십자가,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잡시다 !!

- 완전한 세대교체

· 요단 동편: 에돔을 우회하여, 모압, 압몬, 아모리 족속을 거치게 됨.

(아모리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더럽게 바알신을 섬겼던 족속임)

라. 모세의 정복전쟁

- 요단 동편 점령

- 아모리왕 시혼 & 바산왕 옥을 붙여주심.

· 완전 진멸, 처음으로 요단 동편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게 하심.

- 모압평지에 진을 쳤.

- 모압왕 발락/ 박수 발람 청빙

· 엄청난 공포에 질린 발락왕이...복술로 이스라엘을 미혹하려 시도함.

· 발람의 우화 (당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 (주인에게 항의하는 당나귀)

- 발람의 축복

· 이스라엘을 축복함 (민23/19-22)‘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19)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20) 여호와와 그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21)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22)’ 절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 모압을 몰아내게 하시고, 암몬 족속은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게 하셨음. 나중에 이스라엘이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역할을 하게하기 위하여 남겨두셨음. 얼마나 성경이 모순이 없으며, 정확히 연결되는지 !!

- 요단 동편 정복 (모압평지에 있을 때, 모압사람이 섬기던, 바알브올)을 함께 섬기게 됨. 이것이 이스라엘이 처음 바알신을 접한 경험임. 염병을 내려 24000명을 쳐 죽이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내가 원한 땅을 차지하면, 그 후 반드시 죄가 따르므로, 그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 모세가 기업을 분배

· 2지파 반: 르우벤/갓/므낏세 반지파 (목축에 능한 사람)-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장하고 앞장서라는 약속을 하라고 함. 요단 동편은 목축지가 많아서 (바산: 기가 막힌 땅) 너무 좋으니까,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남겠다” 요청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요단 동편으로 가심) 원하면, 이땅을 주지만, 목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심. 그러나, 너희들이 앞장서서 무장하라고 하심.

바. Nebo산에 모세 세우심

*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심.

- 모세가 내려와서, 신명기 (두 번째 율법: Deuteronomy)를 남기고, 모세가 죽음.

·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하는 책.

· 신명기사관-두 갈래 길의 선택

a) 축복 (하나님말씀)

b) 저주 (우상 섬기려느냐...)

IV 여호수아/정복시대

1. 여리고 점령

* 정복시대: 광야 에서의 불뱀사건으로 1세대 죽고, 2세대로 하여금 요단동편 정복하게 함. 후계자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땅에 들어가게 함.

가. 지도자 여호수아

1) 리더십부여

- 하나님은 200만을 바라보시지 않고,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함께 하셨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을 때, from Egypt (좌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좌와 사망구속> 자유. 홍해 갈라짐은 훌쩍 뛰어넘으면 자유함이 있는 것임. 도전은 없었음. Vs. 요단 강 갈라짐은 (to 약속의 땅) 이제부터, 내 목숨 걸고 전쟁해야.. 여호수아에게 닦친 두려움은 엄청난 것- 당대의 중동에서 가장 무력한 백성들이 있는 땅. 그런 두려움에 떨고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심. 평소에 성경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

씀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직접적으로 들려오기도 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 내게 이야기하심. 음성들은 사람은 믿음으로 움직임.

· 여호수아: 모세의 영원한 aide (도우는 자/섬기는 자)

· 모세: 율법과 기적의 사람이었음. 처음 leadership을 부여 받고, 홍해가 가로막히자, 하나님께서 갈라주심. 유월절/홍해 가르침/만나 이 모든 것이 모세를 통해 나타남. 그의 charisma는 엄청난 것임.

· 여호수아: 기도의 사람 (출33/11)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석판을 받을 때 엄청난 여호와와의 영광을 체험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화하는 그 장면을 다 보았음. 석판/금송아지 깨뜨려버리고/쓸어버리시고/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심/tent of Meeting (회막)에서 모세기도 하였을 때,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사람임.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기도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임. 또한 유일하게 아말렉의 전투에서 이겼던 장수였음.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긴 경험)) 기도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심.

- (수1/5)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엄청난 약속임.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면,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음. 나의 구름기둥/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에게...이렇게 말씀하심.

- (수1/9)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be strong and courageous!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옛날과 똑같이 지금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백성의 화답

1) 리더십 부여받고 2) 백성의 화답을 받으면, 정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

- 십자가 사건이 중요함. 1세대는 늦밤을 보면 안 죽는다는 말을 듣고서도, 늦밤을 보지 않아 죽음 (불신앙) -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leadership에 화답함. 너희들은 정말, 모세에게 기업 받았던 것 (무장하고 약속의 땅에 앞장서는 것) 지키겠느냐? 우리는 당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모시고, 성전(聖戰): 거룩한 전쟁하겠습니다. 아모리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임. 마찬가지로 Jihad도 아랍어로 성전인데, 그들은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심, 적개심, 미워함이 극에 다른 것임. 아브라함에게 이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400년이 지나고 이루어지는데... why 아모리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없애버리라고 하신 것 (가나안 7족속) 다른 것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음. 이들을 죽이지 않고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냈을 때, 바알신앙으로부터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성전 안에서, 하나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되는 것입니다. (습3/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계

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